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사랑은 늘 도망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혼돈의 시간을 시절, 나의 '절친'은 라디오였다. 뉴스와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상식'이라는 저급통을 채워가던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없던 아날로그 시대였다.

친구들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종이에 적어, 틈만 나면 경쟁하듯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청껏 악동뮤지션이 무대를 펼치곤 했다.

그 시절, 내 머릿속은 '교회', '봉사', '기도', '알바', '가난', '행복', '사랑', '대학', '우정', '친구', '인생', '철학'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한 기억은 없다. 오히려 일곱이나 되는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물대 뒷동산에 올라 눈물을 흘리곤 했다.

책읽기를 좋아하던 내가 어느 날, 이름도 없는 '신인가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와 가사는 나의 절실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중략)~어두운 창가에 앉아 침묵을 보다가~'로 시작되는 이 문제의 데뷔곡 '나는 행복한 사람'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 문학박사

이다. 이 노래를 통해 내 인생 최초의 '가수 이문세'를 만났다. 얼굴이 길어 '달'이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으며 발표하는 노래 - '붉은 노을', '눈', '광화문 연가', '소녀', '옛사랑', '알 수 없는 인생', '난 아직 모르잖아요', '할 말을 하지 못했죠', '깊은 밤을 날아서' - 마다 '절실'이 되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고향 대문 앞에 서 있던 커다란 '살구나무'는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랑'이다. 그 '살구나무'에 꽃이 필 때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2010년 드라마 <육방의 불꽃>에 삽입된 OST이자 이문세의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열었지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비탈이 보다 못짓을 세웬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헤어 놓아버릴까 봐
-꼭 울겨줘지만 그리움이 꽃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이 노래의 전반적인 흐름은 청춘의 대명사 '사랑과 이별'에 대한 보편적 삶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다가 아름답던 사람'을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한 사람'에게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라는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눈물'이 난다는 것은 머리를 가득 채운 '기억의 보따리' 때문일 것이다. 그 보따리에는 '종거나', '나쁘거나', '무미건조하거나', '지워버리고 싶거나', '치욕적이거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넘치도록 담겨 있을 것이다. '사랑과 이별'에 대한 '그리움'은 다양하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은 항상 작품을 읽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의 몫이다. 유명한 평론가의 해석은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는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소화하고 재창출하는 우리 모두의 다양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 '고향 대문 앞 살구나무' =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어설론 공식은 허공에 그려본다.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오르면, 따스한 손길로 지켜주는 '포근함'이 자꾸 생각이 나서 돌아다보면 마음이 아파온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선다.

지금도 고향 대문 앞에는 커다란 살구나무가 서 있을까? 수줍은 아이처럼 다시 살구나무 그리움을 움켜쥘 수 있을까? 그 살구나무 아래서 잠시 쉬어가도 될까? 올 봄 살구꽃이 필 때면 찾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구나무를 피해 도망친 건 아닐까?

사 설

대구 경북 코로나 환자 확산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 전국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신천지의 한 여신도가 46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본 게 원인이다. 이제 코로나19는 중국이나 일본만의 고통거리가 아니게 됐다. 이렇다가 우리 한국도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매우 불안하다. 이제 일상 속의 감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북 보건 당국은 긴장 속에서 방역 강화에 나서야겠다. 지금까지 관계자들이 보여준 대응은 고맙고도 든든하다. 그래도 행여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군산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다시는 방역망이 뚫리지 않게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그 확진 환자 한사람 때문에 군산의 거리가 썰렁했던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확진 환가 발생하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것들도 마비가 된다.

중국발 우한 폐렴 사망자 소식을 들은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처음에 몇 명이 죽었을 때만 해도 그것은 중국만의 문제로 여겼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사망자가 3,4십 명이라는 소식이 들리더니 불과 며칠 사이에 100명을 넘고 300명을 넘고 700명을 넘고 1000명을 넘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명을 훌쩍 넘었다.

대구 경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두루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다. 백신 개발도 안 돼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바이러스 차단이 최상책이다. 도민들은 보건 당국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병원균 침투 예방을 위해 애써주기 바란다. 시민 계몽에도 나서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와 노인들 그리고 임신부들을 보살피는 시스템도 강화해 달라는 당부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더 욕심을 내야 한다

도시 재생 사업에 더 욕심을 내야겠다. 전북도는 도내 빈집들이 1만호를 육박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그 빈집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꾸준히 생각해야 한다.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해마다 빈집이 11%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시골 지역도 문제지만 도심지 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농촌의 빈집 증가율보다 10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재생 지원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면 재활용 방안이 생길 터이다. 처치 곤란한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다.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공모에 응한 결과 좋은 성적을 보여줘 도민에게 믿음을 준 적이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기간 동안 있을 물가 인상을 감안해도 정부가 밝힌 그 50조 원은 거대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 한

해 예산이 8조 원이 못 되는 수준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전북도는 도내 빈집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가 생각해야 한다. 도시 재생 사업도 따지고 보면 재묵 찾기가 아닐 수 없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자치했다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서울시의 잔치판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수도권 맞춤형 정책'으로 다른 광역시도 지역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도시 재생 사업에 욕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재촉한 바 있다. 특히 전주시를 향해 그런 말을 자주했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라도 욕심을 내야 한다. 다른 시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익산시와 군산시와 김제시와 남원시는 팔소매를 올려부쳐야 한다.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지금이다. 군단위 지자체들도 한자게 뛰어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신학기 대학가 원룸촌 범죄 예방, 다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신학기를 준비하는 이 무렵, 관찰 내 위치한 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대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에서부터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원룸을 선택할 때 깨끗한 시설인지, 임대료가 저렴한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지만, 가장 중요한 원룸의 방범시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접하듯이 원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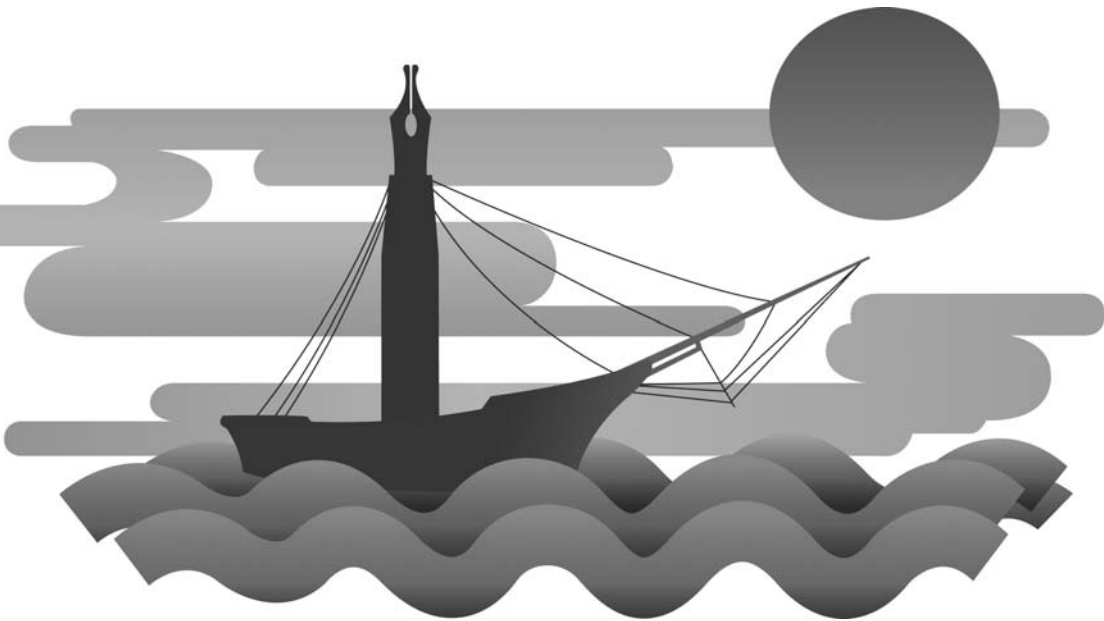
밀집 지역에서의 성관련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침입절도 등의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 관찰에 위치한 원룸 밀집 지역은 타지역에서 와서 이웃과 소통이 없는 학생들이 많고, 신축 원룸보다 주택을 리모델링했다던지 오래된 원룸들이 다수 있어 원룸 건물 자체 보안 시스템이나 방범시설이 허술한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 지구대에서는 1인 거주 원룸

밀집 지역, 특히 대학교 주변 원룸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 등 여성범죄 예방 탄력순찰 및 여성 안심귀갓길 구역으로 지정해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이런 노력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관련 범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민들의 도움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원룸 입주자는 집안의 시정장

치를 꼭 잡고그 현관문 비밀번호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쉽게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주의 경우 원룸 창문에 방범창이나 가시철망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훑어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주변의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추가로 설치할 필요하면 민원을 통해 바로 해결하는 등 주변의 사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나와 가족, 친구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주일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